

# 냉면 한 그릇에 1만2천원... 외식물가 고공행진

광주·전남 서민음식 가격 급등세 1년새 주요외식품목 대부분 올라 김밥·자장면·삼계탕 등 '천정부지'

“여름에는 시원한 냉면으로 더위를 이겨내곤 했는데 요즘 냉면 가격이 너무 올라 사 먹을 엄두가 나질 않네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무더운 날씨에 냉면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던 박지인(27)씨는 냉면 한 그릇에 1만원이 넘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박씨는 “물가가 비싼 건 알고 있었지만 1만원대 냉면 한 그릇은 너무 부담스럽다. 요즘 점심은 직장 동료들과 돌아가며

밥을 사는데 두세 명이 먹으면 4만~5만원은 기본으로 나간다”며 “직장 내에는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싸 오는 사람도 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집과 직장이 멀어 출근 준비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해 매번 점심값으로 돈이 줄줄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외식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표 외식메뉴도 덩달아 고공행진 중이다. 여름 별미인 냉면과 삼계탕부터 김밥, 자장면 등 서민음식이 최근 큰 폭으로 오르며 서민 외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 주요 외식 품목 8개 중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품목은 광주 6개, 전남 7개다. 광주는 지난해보다 냉면, 비빔밥, 삼겹살(환산후), 자장면, 삼계탕, 김밥 등이 올랐으며 전남은 삼겹살(환산후)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올랐다.

광주지역 냉면값은 최근 2년 사이 급등하며 1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달 광주 평균 냉면값은 9600원으로 지난해 같은달(9300원) 대비 300원 올랐으며 2년 전 8600원과 비교해 무려 1000원이나 뛰어올랐다. 광주 유명 냉면 전문 식당의 경우 냉면 한 그릇을 1만2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어 냉면값은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며 더욱 오를 전망이다.

냉면 외 여름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음

식인 삼계탕 가격은 평균 1만6400원으로 전년(1만5600원) 대비 800원 오르며 광주 지역 8개 외식품목 중 가장 많이 올랐다. 2년 전 1만4800원과 비교하면 1600원이나 비싸졌다.

대표 서민음식이라 불리는 김밥 한 줄 가격은 평균 3340원으로 지난해 같은달(3160원)보다 180원 올랐다. 김밥 가격은 김 수출 확대, 작황 부진 등의 이유로 김 가격이 상승에 따라 꾸준히 올라 지난해 3월 3000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치즈, 고추 등 추가 재료에 따라 4000원이 넘는 김밥도 속속 생겨나는 추세다.

자장면 가격 역시 지난달 평균 6800원으로 1년 전(6300원)보다 500원 비싸졌

으며 2년 전(6000원)과 비교해 800원 올랐다. 자장면은 지난 2022년 4월 6000원대를 넘은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해 자장면 한 그릇에 7000원을 앞두고 있다.

냉면, 김밥 등 서민 외식비가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정부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외식업계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외식업에 현장 배치하는 등 외식업체 육성 자금 확대와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삼성전자가 20일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신규 색상인 '에센셜 화이트' 색상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온라인 전용 제품으로 삼성닷컴에서 판매한다. 삼성전자 제공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색상 라인업 강화

### 에센셜 화이트 색상 출시

삼성전자가 20일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신규 색상인 '에센셜 화이트' 색상을 출시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제품은 온라인 전용 제품으로 삼성닷컴에서 판매한다.

삼성전자는 결혼과 이사 등으로 새로운 가전 수요가 급증하는 5월을 맞아 소비자들이 취향과 인테리어에 맞춰 다양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다크실버 스틸, 새틴 라이트베이지에 이어 신규 색상인 에센셜 화이트를 선보였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기와 건조기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올인원 세탁건조기로, 'AI가전=삼성' 공식을 널리 알린 대표 제품이다.

세탁물 이동없이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가능하며,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를 적용해 단독 건조기 수준의 건조 성능을 갖췄다. 특히,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설치할 때보다 설치 공간을 약 40% 절약할 수 있다.

비스포크 AI 콤보 구매를 인증한 고객에게는 삼성전자 멤버십 5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구매 후기를 남긴 고객 모두에게 퍼실 디클린 파워젤 세제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황태환 부사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비스포크 AI 콤보 에센셜 화이트 색상 출시로 집 안 분위기를 더욱 깔끔하고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매력을 갖추게 됐다”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 '비스포크 AI 콤보'로 올인원 세탁건조기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권범 기자

## 광주시청서 '전통시장 우수제품판매전'

### 내일까지 12개 시장 참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5월 동행축제 기간에 맞춰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광주전통시장 우수제품판매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지역 전통시장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광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상인연합회, 소담스퀘어인광주 등 광주지역 소상공인 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광주전통시장 우수제품 판매전에서는 김치, 곱창김, 김부각, 참기름, 건어물, 과배기 등 12개 시장 21개 점포의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특히 호주와 미국의 유명레스토랑에서

디저트로 활용할 만큼 맛과 품질이 우수한 1913송정역시장의 느린떡거리김부각과 2023 광주김치축제에서 김치반찬장인으로 선정된 남광주해뜨는시장의 최재호 김치 등 광주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21일에는 광주시청 잔디광장에서 네이비 쇼핑라이브 'kbc우리동네종드만마켓'의 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해 시민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고 서울깍두기 설렁탕, 시골향 추어탕, 흥어회 등 지역 유명 먹거리를 전국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앱을 통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충전한 고객 1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증정하고, 전통시장 우수제품 2만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는 경품추첨권을, 3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경품추첨권과 함께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함께 동행축제 기간에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을 확대해 지류 상품권은 150만원까지 5%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충전식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200만원까지 10%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전통시장·상점가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장에 홈페이지에서(www.sijanga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해 다양한 이벤트도 즐기고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해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행복한 동행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 금호타이어, 기후환경 교육 '그린 캠페이너' 진행

### 지속가능 경영·사회적 책임 실천

금호타이어가 올해에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대표 황영기)과 함께 기후환경교육 '그린 캠페이너' 활동을 이어간다.

'그린 캠페이너' 활동은 아동권리에 기반한 교육으로 아동들이 기후변화의 대응 주체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고 캠페인 공모 및 시상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며 사회 가치 전파를 추구한다. 또한 아동들이 다양한 환경 이슈(저탄

소, 생물 다양성 등)와 관련된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해 참여도를 높이고 실천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초등학교 및 중학생 1200명(50개 학교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교육내용은 총 2단계로 나눠 1단계는 정보와 자료를 통한 학습, 2단계는 활동을 위한 캠페인 기획으로 이뤄진다. 기후위기로 인한 다양한 현상과 원인 파악,

기후위기의 의미와 심각성 깨닫기 등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함께 캠페인 기획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실천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진구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는 그린 캠페이너를 비롯해 교실실용 조성 활동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활동범위를 넓혀가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노동 칼럼

##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그간의 기고문을 보고 많은 분이 우리 센터로 상담 전화를 주신다. 상담의 결과로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노동권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쉽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전화를 주시는 분들에 따라서 본인의 근로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의 주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류를 작성하고 나누어주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 및 담당 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을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사업주가 나눠주지 않았다면, 서명을 마친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을 추천한다.

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을 입증할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임금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임금명세서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48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등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정보와 공제 내역에 대해서 적어서 종이 또는 전자 문서로 노동자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임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적혀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연주 공인노무사

임금명세서 제도는 21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아직까지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리잡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가 본인의 노력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한 스케줄표 또는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타임카드 기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단위로 출퇴근시간이 달라

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배포하는 스케줄표를 보관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임금을 받을 때에는 꼭 통장을 거쳐서 지급을 받으며, 조금이라도 잘못 임금이 되거나 금액에 의문이 들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꼭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한다.

물론 이러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 또는 상담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주와 노동자의 주장이 서로 다를 때에는 증거자료를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는 사업장에서 받은 자료들을 버리지 말고 잘 챙기도록 하자. 1588-6546